

일 주 문



제31회 호국영령천도법회 서울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호국영령천도법회 봉행위원장)은 6월 25일 5군단 호국 금강사에서 제31회 호국영령천도법회를 열었다.



불교상대학원대학교 설립기금기부 금강선원장 해거 스님은 7월 1일 불교상대학원대학교 설립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



레인보우 합창단 후원식 개최 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 무원 스님은 6월 26일 오후 5시 30분 대웅제약 별관 배어홀에서 레인보우합창단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조계종 노동위, 노동자 초청 템플스테이 조계종 노동위원장 종호 스님은 노동자 53명과 함께 속리산 법주사에서 6월 27~28일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운문사, 세월호 희생자 지원 운문사 주지 일진 스님은 6월 24일 세월호 희생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1천만 원을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기부했다.

광주불교방송 이민수 사장 취임식



광주불교방송의 이민수 사장이 취임식을 갖고 호남지역 불교포교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광주불교방송(사장 이민수)은 지난 6월 26일 신라파크호텔 대연회장에서 제2대 사장 취임식을 갖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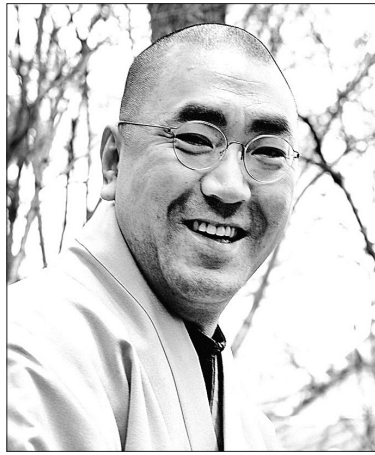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불교방송 이사장 종하 스님,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연광 스님, 불교방송 이채원 사장, 윤정현 광주광역시 시장 당선자를 비롯해 지역 방송사 대표 등 300여 명의 대중이 동참했다.

이민수 신임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내년이면 20주년을 맞는 광주불교방송이 새로운 비전을 갖고 다시 도약하는 시기"라며, "영광과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릴 불교정도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사장은 "난 정치적인 전남 동부권 등 일부 지역의 중계소 설치에 전력을 쏟을 것이며, 나아가 전북지역까지 아울러 호남을 대표하는 불교방송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융합·밀착형 복지관 만들것”

한솔종합사회복지관장 새로 취임한 가섭 스님



젊은 세대 찾아오는 곳으로 서비스질 향상 최우선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

“다시 사회복지사로 돌아왔습니다. 복지관 안에서는 스님이라기보다는 복지관 관장이라는 생각으로 임할 것입니다.”

7월 1일 경기도 성남 한솔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취임하게 된 조계종 교육국장 가섭 스님. 운영법인이 승가원에서 연꽃마을로 바뀌면서 복지관의 새로운 수장이 됐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에서 물러난지 2년 만이다.

중앙승가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일했던 가섭 스님은 다시 복지현장으로 돌아오게 돼 의욕이 넘치는 눈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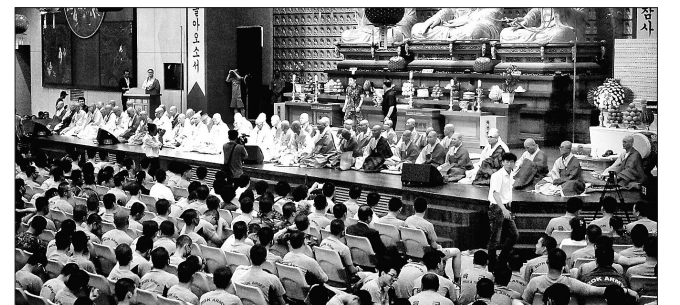
가섭 스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융합복지’라고 꼽았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역시 노인복지관이었으나 젊은 세대가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공동체 회복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강남어르신부터 강북어르신까지 찾아오는 복지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서비스 질 향상에도 중점을 뒀다.

이런 경험을 발판삼아 스님은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운영방향 역시 융합형으로 잡았다. 지역 복지관이라는 특성도 감안해 밀착형도 추가시켰다. 세대 간 함께할 수 있는

융합 프로그램 만들되 지역 여건에 맞춘 밀착 서비스로 먼저 다가가겠다는 것이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모든 계층이 이용하는 종합복지관은 통합 서비스를 구현하기에 장점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프로그램 중심축에도 변화가 생길 듯하다. 상당부분 장애인을 위해 운영되던 기존 프로그램을 복지관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해 부분적으로 개편할 생각이다. 저소득 노년층 비율이 높다는 지역 성격도 고려됐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종정협의회 호국연무사 위령제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회장 월인)는 6월 22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대법당에서 ‘6·25전쟁물장병 및 세월호 희생자 위령대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장 월인 스님을 비롯한 50여 회원 종정 스님들과 종단 지도자, 훈련장병 5000여 명이 동참했다. 대원불교조계종(종정 청봉) 종도들의 의식집전으로 범패, 비라, 나비춤, 진훈무 등에 이어 호국영령 위패단 헌화 등이 진행되었다. 종정협의회는 이번 위령제를 계기로 매년 6월 호국연무사 위령제와 훈련장병 위문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마이산 탐사, 자비의 김치와 쌀 전달



신비의 돌담으로 널리 알려진 진안 마이산 탐사(주지 진성스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끊임없는 자비행을 실천하고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탐사는 6월 20일 진안군 자원봉사 센터 앞 마당에서 탐사 나누리 봉사단,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원불교, 장애인 봉사단체 등과 함께 밀반찬과 걸저리 김치를 담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이밖에 탐사 나누리 자원봉사단은 진안군내 11개면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진성 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의미에서 김치와 자비의 쌀을 전달하게 됐다”며 “힘든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2014 불이상(不二賞) 수상자 선정

동출 스님·김영진 교수 수상 7월 7일 신라호텔서 시상식

2014년 불이상(不二賞) 수상자로 연구 분야에 김영진 동국대 조교수를, 실천 분야에 동출 스님(설법연구원 원장)이 선정됐다.

연구 분야 수상자로 선정된 김영진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조교수는 철학과 사학과 등 인접 학문과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 중국 근대 불교부흥운동에서 광복할 만한 연구 성과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총 6권의 저서와 30여 편 이상의 논문 집필 활동을 통해 국내 학계에 생소한 중국 근대 불교, 중국 불교 철학사상 부문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받아 왔다. 뿐만 아니라, 해당 부문에 대해 다양하면서도 심도 있는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김 교수의 학문적 자질과 소장 학자로서의 능력이 향후 불교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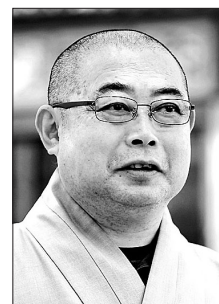
김영진 교수는 “그동안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중국 근대불교 분야는 국내에 연구하는 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 점을 불이상 측에서 인정해 주신 거 같아 고마울 따름이다. (중국 근대 불교학의 형성)이라는 주제를 몇 년간 저술 작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영역을 확장해 명·청 시대까지 연구 분야를 계속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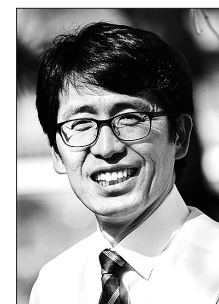
김영진 교수는 1970년생으로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불교학 문학 석사와 불교교학 철학박사를 받고 현재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조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실천 분야 수상자로 선정된 동출 스님은 불교 문서 포교 부문에서 선구적인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스님은 25년 동안 <불교설법전서 총 10권> <불교만화 총 17권>을 완간하고, <전통사찰 총서> 간행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문서포교 활동을 펼쳐왔다.

동출 스님은 불서 보급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불교계 출판 문화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고 저변을 확대하는데 크게 공헌한 점을 높이 인



동출 스님



김영진 교수

정받았으며,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불교 활동가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회 공헌 활동에도 앞장서는 등 불법 실천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출 스님은 “지금까지 불서 만화를 17권 냈는데 30권까지는 채우고 싶다. 또한 지금 한 권을 출판한 탄탄한 스님 책도 10권까지는 내고 싶다. 실천가 지원사업은 10년을 마치고 회향했는데 앞으로 10년을 다시 이어갈 생각”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총 상금은 4천만원(각 분야 2천만원)으로 시상식은 7월 7일 오후 2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정혜승 기자 bwjns@hyunbul.com

제12회 한불련 체육대회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이하 한불련, 회장 석인경)는 6월 22일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제12회 한불련 정기연수 및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포교사를 대상으로 10분 포교경연대회가 열렸다.

노덕현 기자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여름캠프

신라 화랑들의 기상과 조선시대 승병들의 혼이 깃든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45회 여름캠프를 개최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 새 시대의 리더로서 강한 정신력을 기를 수 있는 청소년 화랑 수련회에는 불교 강의와 인성교육, 명상과 선무도,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는 21세기 신화랑 캠프입니다.

- 일시** 2014년 7월 20일 ~ 8월 23일
- 모집인원**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0 ~ 15시 입산 / 토요일 12시 하산
- 대상**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일반인 템플스테이)
- 수련회비** 1주-35만원 · 2주-70만원 · 3주-90만원 · 4주-110만원(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 국민은행 :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준비물** 세면도구, 수건, 필기도구, 운동복, 운동화, 우산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 접수문의** ☎ 054)775-1689, 744-1689 * 홈페이지 : www.sunmudo.com



- 기본 프로그램 :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불교강의, 좌선, 108배
- 영 어 캠프 : 선무도를 수행하는 원어민 자원봉사자와 함께 생활
- 매주 색다른 생태순례 : 감포깎지길 걷기 · 숲대만들기, 경주남산담사 읍전항 · 주상절리길 걷기, 박물관 및 경주문화유산탐방
- 부모님께 효도마사지 실습 및 예절교육,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1500년 전통사찰 ·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2014년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아동 마음자람(정서지원) 멘토” 양성교육 수강생 모집 - 보살피는 엄마의 알하는 여성되기 프로젝트 -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경력단절 여성을 아동의 정서지원을 위한 멘토로 양성하고, 취약계층이 밀집한 복지관 등에 파견하여 여성과 아동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교육대상 :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경력단절 여성
- 교육기간 : 7월 14일(월) ~ 7월 25일(금) 오후 2시 ~ 5시(단, 금요일 수업은 10시~17시) (2주간 주 5회 / 총 34시간 교육)
- 교육인원 : 40명(교육 특성 상 인원 초과시 내부 선발할 수 있습니다.)
- 교육장소 :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조계사 맞은편)
- 수강료 : 무료
- 접수기간 : 7월 6일(일) 23:00 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및 팩스, 우편 신청
 - 홈페이지 : www.kbcd.org , E-mail : jabi7378@naver.com
 - Fax : 02)737-8802,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4번지 3층 사)자비의전화
- 주 최 : 사단법인 자비의전화
- 후 원 : 여성가족부
- 문 의 : 사단법인 자비의전화 (Tel : 02)737-7378)

특 전

- 1) 본 과정 이수 시 수료증 수여 (출석률 80% 이상 달성자에 한함)
- 2) 교육 수료생 중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여 실습기회 부여

사단법인 자비의전화